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3. 22(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2,589.0p(-16.0p DoD)



컨테이너운임(SC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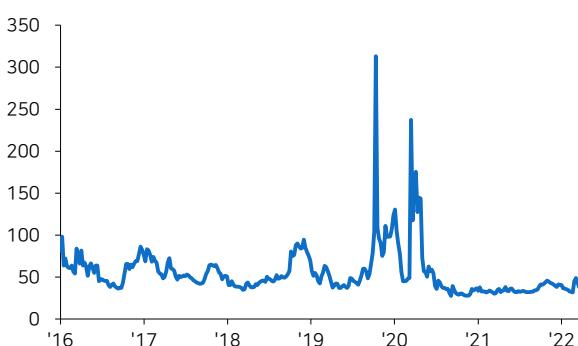
4,540.3(-84.8p WoW)



VLCC Spot Rate

37.7(-6.2p WoW)

(WS) VLCC Ear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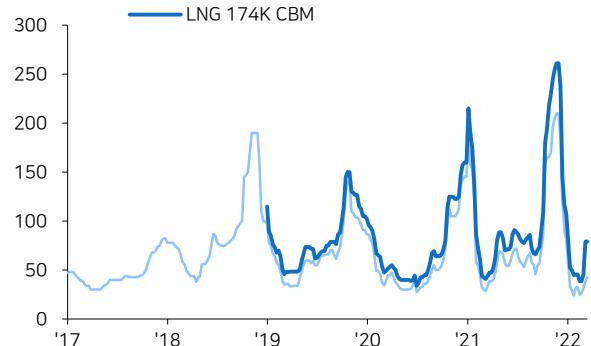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42.5p(+4.5p WoW)

79.3p(+0.0p WoW)

(천달러/일) LNG 160K CBM

(천달러/일) LNG 174K 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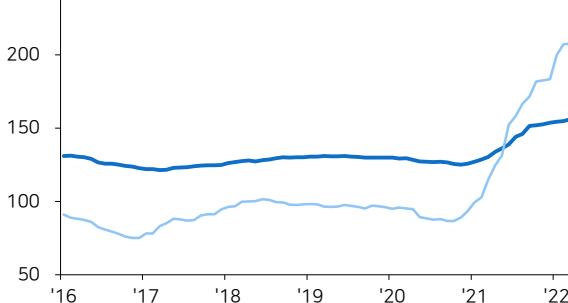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1p(+0.3p WoW)

207.7p(+0.1p WoW)

(p) 신조선가

(p)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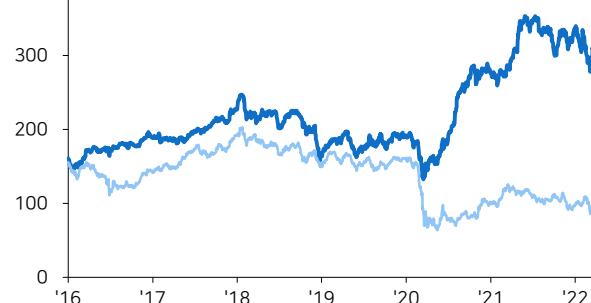
항공시장 지표

306.4p(-0.6p DoD)

98.8p(-1.1p DoD)

(p) MSCI 항공화물 index

(p) MSCI 여객 Index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US regulator turns up heat on liner operators while adding five more

연방해사위원회(FMC) 선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보도됨. 2021년 여름 발표한 컨테이너선사 반독점감독(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 Audit Program)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됨. 감독대상은 HMM을 포함한 기존 상위 9개 선사에서 5개 선사가 추가됨. (Tradewinds)

한중 코로나 급증세에 양국 왕래 항공편 대거 중단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3월초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내외 항공사 노선이 26개였는데, 이번 주 왕복 모두 정상적으로 운항되는 노선이 8개로 보도됨. 특정 노선에서 확진자가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 운항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크' 규정과 중국 일부 공항 폐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함. 인천-베이징 노선 유일한 항공편이었던 에어차이나 노선도 지난 18일 왕복 모두 운항 중단됨. (연합뉴스)

Australia starts immediate ban of bauxite shipments to Russia

호주가 알루미나와 알루미늄 광석 등의 러시아향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고 보도됨. 보크사이트도 포함됨. 현재 러시아는 알루미나 수요의 2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음. 호주의 제재로 러시아는 중요한 수출품인 알루미늄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Russian crude exports to Asia have increased since invasion, Poten says

Pote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아시아향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증가했다고 보도됨. 2월 24일 이전 열흘간 아시아향 수출량은 평균 1,400만BPD였는데, 현재 1,750만BPD로 증가함. 가격민감도가 높은 인도가 과거 대비 4배 더 수입했다고 언급함. 한국은 특이 케이스로, 제재에는 동참하지만 원유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됨. 한편, 국제사회의 러시아 원유 제재효과는 4월경 나타날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EU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검토… 영국, 사우디·UAE에 증산 요청

유럽연합이 미국에 이어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조치 논의에 들어간다고 보도됨. 24-25일 EU정상회의에서 고갈된 천연가스 저장량을 다시 채우고, 가스 소매가격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짐. EU는 천연가스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한편, 지난 16일 영국총리는 UAE,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대규모 원유 증산을 요청한 바 있음. (파이낸셜뉴스)

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5척 2,111억원에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아프리카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1,800TEU급으로 금액은 총 2,111억원임. 3척은 2024년 상반기, 2척은 2023년 하반기까지 인도될 것으로 공시됨. (연합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